리오넬 메시와 FC바르셀로나의 ‘냅킨 계약서’.[사진 제공 = 본햄스 홈페이지 캡처]전설의 시작이 된 13세 리오넬 메시와 FC바르셀로나의 ‘냅킨 계약서’가 경매에 나와 76만2400파운드(약 13억원)에 낙찰됐다.영국 경매업체 본햄스는 18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메시가 13살 때 바르셀로나 입단 계약의 약속을 적은 냅킨이 온라인 경매에서 76만2400파운드에 팔렸다. 경매 시작가는 30만파운드(약 4억725만원)이었다”고 밝혔다.이번 경매는 지난 8일부터 시작돼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냅킨 계약서’는 현재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메시와 바르셀로나의 첫 계약이다.2000년 바르셀로나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13세 메시와 계약하려고 가족과 만났다.바르셀로나는 한 식당에서 냅킨에 파란색 볼펜으로 즉석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 조건이 맞지 않자, 자리를 뜨려던 메시 측에게 급하게 금액을 약정하면서 냅킨에 계약서를 쓰게 된 것.냅킨 계약서에는 “2000년 12월 14일 바르셀로나에서 레샤크 이사는 메시와 합의한 금액에 계약하기로 했다. 어떠한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레샤크 이사가 책임을 지고, 메시를 영입하기로 했다”고 적혀있다.메시는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 합류했고 전설이 시작됐다.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778경기에 나서 672골을 터뜨렸다.본햄스 측은 “그저 종이 냅킨에 불과하지만 메시의 경력의 시작이 됐다”라며 “냅킨 한장이 바르셀로나는 물론 역대 가장 뛰어난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된 메시의 운명을 바꿨다”고 평가했다.